

당신은 지금, 새로운 삼양을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앞에도 당신의 옆에도 당신의 뒤에도
새로운 삼양이 있습니다. 지난80년간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 온 삼양!
이제 새로운 얼굴, 새로운 모습으로 당신 곁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당신의 삶 그 안에, 삼양이 있습니다.

samyang



life's ingredients
samyang

삼양의 'Life's Ingredients'는 우리 삶에 필요한 요소를 의미하며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華巖書院 山仰會報

◇目次◇

- | | |
|---------------------|----------------------|
| 1. … 小康에서 大同으로 | 10. … 惡法通過에 糾彈과 自省 |
| 4. … 朱子の 仁說 | 11. … 山仰會 消息 |
| 5. … 西銘(訂頌) | 13. … 筆巖書院 消息 |
| 7. … 河西先生의 詩 | 15. … 新入會員 住所錄 |
| 9. … 河西의 經濟思想 강연 요지 | 16. … 誠金內譯 및 新入會員 환영 |



仁宗이 하사하신 墨竹圖의 관각을 보관하고 있는 敬藏閣과 祐東祠.

(515-812) 全南 長城郡 黃龍面 筆岩里 377, 電話: 061-394-0833
發行人: 山仰會長 朴鍾達 編輯主幹: 金梓洙

筆巖書院 山仰會

小 康에서 大 同으로

金 長 洙

필암서원 산양회 전 총무

書院의 由來를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당나라 현종때 麗正殿書院과 集賢殿書院이 처음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1542년 중종37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여 안향선생을 모신 후 1550년 퇴계선생이 임금에게 주청하여 소수서원이라는 사액을 받고 나라에서 책과 노비 토지등을 지원하여 학문을 진흥토록 하였으니 선현의 제사 기능보다는 학문진흥 기능이 우선하는 사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선조 명종 이전에 29곳의 서원이 있었고, 선조때 124곳 정도였으나 숙종 연대에 濫設이 되어 각도에 8-90곳이 있을 정도로 성행하였으니 학문을 진흥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보다는 조세를 피하고 院奴를 두어 군역을 기피하거나 공부대신 봉당에 메달리어 공론을 일 삼았으며 執綱들이 제사를 구실로 양민을 토색질하는 폐단이 많아 1644년 인조 때는 서원 설치허가제를 실시하고 1657년에는 남설한 자는 처벌하는 규제가 있어 효종 때는 650곳 정도의 서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조 말기에 평양기생, 전주아전, 충청도 양반(서원 집강)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병폐로 적시되어 1864년 고종이 즉위하자 섭정을 하게된 흥선 대원군이 전국의 서원을 철폐하고 47 곳만 존속케 하였으니 毀撤의 당위성 與否를 떠나서 마치 고려 말기에 불교의 지나친 폐단으로 조선조 태종 때 도첩제를 실시

하여 사찰을 폐지하고 승려에게 주는 토지와 종들을 대폭 감축한바 있듯 이같은 사례는 목적이 좋아도 실제 폐단이 많아 민생에 해를 끼치면 혁파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문화의 기본 가치, 특히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발전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서원은 아직도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앞장서야 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漢唐이래 중국에서 종이, 화약, 나침판, 인쇄술이 서양에 전파되어 그들이 풍요로움을 누려왔고 근세에는 자동차(1883년)전화, 전기(1879년)비행기(1903년) 티.브이(1925년)등 문명의 이기가 동양에 전래되어 우리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여 빠르고 간편한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다 보니 우리의 정신세계는 날로 거칠어지고 인륜은 頹落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문화가 올림픽 정신의 숭고함을 이어 받은 듯 강조하지만 고대희랍의 올림픽이 중도에 폐지되었다가 쿠벨당이 문헌을 발견하여 1896년 아테네에서 4월 첫주일에 개최하였던 것이 지금은 전세계의 행사로 발전되어 국력을 뽐내는 자리가 되었으니 오류의 정신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에 있는 것이라면 당초부

터 약육강식의 판정시비와 약물중독, 성전환등 부정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니 그들이 어찌 동양 사상에 노자의 허를 알아서 덜 빨리 덜 높이 덜 세계의 정신으로 인류의 진정한 평화를 도모할 것을 미리 생각하였겠습니까? 1980년대 초에 세계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인류의 도덕적 위기와 자연 환경의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자의 사상을 배워야 한다” 는 파리 선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前漢의 동중서(董仲舒:BC179-104)는 춘추시대 어지럽던 제자백가의 사상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동사회를 이룩하고자 파출백가 독존유술(罷黜百家 獨存儒術)을 건의하였으니 유학이 法家, 刑家, 墨家, 道家, 陰陽家, 農家등 제가 사상의 장점을 통합하러 함이요 배척함이 아닌 것입니다. 대일통(大一統)을 실현하여 우주만물이 생성소멸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자연의 모습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화목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화(和)의 사회 곧 대동사회를 이룩하고자 한무제에게 건의하여 오경(詩, 書, 易, 禮, 春秋)을 유교의 경전으로 삼아 가르치게 하고 음양가의 주장을 수용하여 우주론을 수립하고 性三品說을 주장하였고 法家の 三綱을 받아들여 평등관계의 윤리를 상하복종관계의 윤리로 만들었으며 하늘을 긍정하는 맹자를 추종하여 讖緯說과 災異說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正義를 바로 할 뿐 그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道理를 밝힐 뿐 그 공을 헤아리지 않는(正其義 不謀其利 明其道 不計其功) 儒者의 도리를 닦아, 대도가 고루 행해지는 평화로운 성세가 공자께서 바라는 이상임을 주창하였고, 청말 대학

자 康有爲는 그의 저서 대동서에서 小康시대를 점진시켜 태평대동의 이상세계를 실현한다는 대동사상을 민주주의적 개혁사상의 원류로 삼아 공자를 추앙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군신신부부자자의 정명론이 뒷받침되어야 大道가 행해지고 奸邪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대문이 없어도 도적이 없는 한 울타리의 공동체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많은 서양의 물리학자들이 분자에서 원자를 쪼개고 원자를 원자핵과 전자로 쪼개고 원자핵을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고 중성자를 쿼크로 쪼개고 입자가속기를 활용하여 힉스입자를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어도 결국은 廉溪의 太極圖說에서 말하는 無極之眞의 범주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동양철학의 우월성은 “大哉라 易也여 斯其至矣로다”라는 말이 虛言이 아닙니다.

유학이란 천명을 근본으로 하여 仁에 의해서 일관된 인도(人道)를 道로 하고 그 도를 실행하는 덕을 존중하며 수기치인을 목적으로 하는 孔孟學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할 때 수기치인의 방법론으로 주자가 주창한 白鹿洞學規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 處事之要에서의 先公後私 精神과 接物之要에서의 己所不欲 勿施於人 行有不得 反求諸己가 爲己之學의 要諦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存德性하여 克己를 이루고 道門學하여 復禮하는 길이 未發之中의 善한 本性으로 仁을 體現하는 길이요 이것이 곧 修己治人의 길입니다.

필암서원 산양회는 2001년 8월 22일 구 산양

계의 정신으로 재발기하여 초대회장이신 次山 安晉福 박사의 헌신적 노력으로 2002.12.10 산양회보 창간호에 이어 2003.6.10 제2호, 2008.12.10 제3호를 발행하였고 같은 해 12.17 일 총회에서 임기 만료로 사임하시고 松石 朴鍾達 현회장께서 산양회를 운영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일부 집행부서의 유고로 한동안 운영에 소강 상태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남유림의 상징적 결합체로서 필암서원과 필암서원 산양회는 그 사명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河西선생을 백세의 사종으로 숭앙하고 필암서원을 성학수련의 도장으로 영구 보존 발전시키며, 도학 절의 문장을 연구하여 사도를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창한 목적은 말로만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因人成事하려는 생각도 버리고 참된 유림의 자세로 서원이나 산양회가 기능적으로 유기적 결합체가 되어 장기적 안목에서 일체감을 가지고 조그만 힘이나마 보태려는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세대의 구분을 벗어나 실행 가능한 것부터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원 주변의 성역화, 한시백일장, 춘추향사 봉행등 여러 분야에서 비교적 잘 되고 있지만 향후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 몇가지 생각을 적어봅니다. 우선 河西선생 문집의 정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민족문화추진회 문집총간본과 하서기념회 발행본, 필암서원(1993년)간행 하서전

집의 異同을 區分 整理하는 일이고, 다음은 광주시 중외공원에 세워진 하서선생의 동상이 표준이라면 필암서원 입구에도 설치하면 어떨까요? 또 서울의 하서기념회는 필암서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큰 테두리의 정보는 서로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서원을 견학 방문한 자에 대한 배려도 길을 좀 더 높이는게 어떨까요. 예를 들면 도산서원에서 “퇴계선생일대기”를 염가에 보급하듯 초중등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대기를 집필하여 보급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地自體와 협조로 시청각교실을 운영하면 더욱 좋겠지요. 관광홍보도 겸하여 서원 입구에도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백양사 안내판에는 필암서원을 조금 더 크게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양회보도 교육기관(고교, 대학)에 확대 보급하여 학회 설립에 따른 인적 자원의 저변을 확대하면 어떨까요? 또한 하서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원이 주축이 되어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지요.

두서없이 늘어놓아 송구스럽습니다.

우리들 목전에서 인륜을 저버리는 것을 當然視하는 세태를 비판하기에 앞서 모든 유림들이 참된 선비정신으로 溫故而知新하여 전통문화의 훌륭한 장점을 이 시대에 걸맞게 적응시켜 계승 발전하는 것이 대동사회를 이룩하는 지름길이 되리라 믿으면서 이만 씁니다.

朱子が 말하기를, “仁이라는 것은 천지가 만물을 生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이것을 얻어서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 아직 발현하기 전에 四德(仁義禮智)이 구비되어 있는데, 오직 仁만이 이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 涵育하고 渾全하여 거느리지 않음이 없어서, 이른바 生의 性이요, 愛의 理이니, 이것이 인의 본체이다. 이미 발현된 즈음에는 四端이 나타나는데, 오직 惻隱만이 이 四端을 관철하고 있어서 周流하고 관철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른바 性의 情이요, 愛의 발현인데, 이것이 인의 작용이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未發은 體요 已發은 用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말해서 仁은 體요, 측은하게 여기는 情은 用이다. 公이라는 것은 仁의 근본(體)이 되니, 자기를 克復하여 禮에 돌아감이 인이 된다고 하는 말과 같다. 대저 公은 仁이요, 仁은 愛이니,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 用이요, 남을 恕하는 것은 그 베풀음이요, 知覺하는 것은 이것을 아는 일이다.”하였다.

또 그는 말하기를, “천지의 마음은 그 덕이 넷이 있어서 元과 亨과 利와 貞이라 하는데, 元은 통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 元亨利貞의 운행은 춘하추동의 차례가 되는데, 봄이 生하는 氣는 통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됨에 그 덕이 또한 넷이 있어서 인의예지라 하는데, 인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인의예지가 發하여 用하면 愛恭宜別의 情이 되는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貫通하지 아니함

이 없다. 대저 仁이 道가 됨은, 곧 천지가 物을 生하는 마음이 物에 나아가 있으면서, 情이 발현되기 전에 이미 이 본체가 갖추어져 있고, 정이 발현하여 그 작용이 무궁한 것임을 이름이니, 진실로 이를 본받아 보존하면 못 善의 근원과 백 가지 행실의 근본이 이에 있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孔門의 교육이 반드시 배우는 이로 하여금 仁을 구하는 데 쉬지 않고 노력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에 ‘자기를 이겨서 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 된다.’ 하였으니, 이것은 자기의 私心을 제거하고 天理에 돌아갈 수 있으면 이 마음의 體가 있지 아니함이 없고, 이 마음의 用이 행하지 아니함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또 말하기를 ‘거처하는 것이 공하고, 일을 하는 것이 공경스러우며, 타인에게 충성하면, 또한 이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효도로써 아버지를 섬기고, 공경으로 형을 섬기며 怨로써 타물에 끼쳐야 할 것이다.’ 한 것은 또한 이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천지에 있어서는 塊然히 만물을 낳는 마음이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溫然히 사람을 사랑하고 物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니, 四德을 포함하고 四端을 관통하는 것이다.”하였다.

朱子 仁說 原文

朱子曰 仁者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未發之前四德具焉 而惟仁則包乎四者 是以涵育渾全無所不統 所謂生之性愛之理仁之體也. 已發之

際四端著焉 而惟惻隱則貫乎四端 是以周流貫徹 無所不通 所謂性之情愛之發仁之用也. 專言則未發是體已發是用 偏言則仁是體惻隱是用 公者所以體仁 猶言克己復禮爲仁也 蓋公則仁仁則愛 孝悌其用也 而恕其施也 知覺乃知之事又曰天地之心其德有四 曰元亨利貞而元無不通 其運行焉則爲春夏秋冬之序 而春生之氣無所不通 故人之爲心其德亦有四 曰仁義禮智而仁無不包 其發用焉則爲愛恭宜別之情 而惻隱之心無所不貫 蓋仁之

爲道 乃天地生物之心則物而在 情之未發而此體已具 情之既發而其用不窮 誠能體而存之則衆善之源百行之本莫不在是 此孔門之教所以必使學者汲汲於求仁也 其言有曰克己復禮爲仁 言能克去己私復乎天理 則此心之體無不在 而此心之用無不行也 又曰居處恭執事敬與人忠 則亦所以存此心也 又曰事親孝事兄悌及物恕 則亦所以行此心也 此心何心也 在天地則怍然生物之心 在人則溫然愛人利物之心 包四德而貫四端者也

西銘(訂頑)

張載

하늘을 아버지라 부르고 땅은 어머니라 부른다. 나는 그 속에서 싹터 피졌으니 그 가운데서 혼연히 살고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것이 나의 몸이며, 하늘과 땅의 운행을 거느리는 것이 나의 본성이다. 모든 사람은 나와 땃줄을 같이 하고, 모든 물체는 나와 더불어 살아간다. 天子는 내 부모인 하늘과 땅의 맏아들이요, 大臣은 그 맏아들의 家相이다.

우주가 다 한 가족일지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경함은 어른을 어른으로 대하는 까닭이요, 고독하고 허약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은 어린이를 어린이로 대하는 까닭이다. 聖人은 하늘과 땅과 덕이 일치하는 사람이요, 賢人은 하늘과 땅의 빼어난 정기를 탄 사람이다. 하늘 아래의 피곤하고 노쇠하고 잘라지고 골병 들고 형제 없고 자식 없고 아내 없고 남편 없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이니, 괴롭고 호소할 곳 없는 사람

들이다.

하늘의 도리를 두려워하여 이것을 보존하는 것은 아들로서 공경함이요, 즐거워하고 또 근심하지 아니함은 효도의 순수함이다. 하늘의 도리를 어기는 것을 悖德이라 하고 하늘과 땅의 도리인 仁을 해치는 것을 도적이라 하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몸쓸 자식이요, 天地로부터 받은 그 형체가 생긴 대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오로지 부모를 닮은 사람이다.

변화의 법칙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인 부모를 잘 계승하는 것이요, 신묘한 이치를 窮究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잘 계승하는 것이다.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욕됨이 없는 것이며,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부모)을 섬기는 데 게으르지 않음이다. 맛 좋은 술을 싫어하는 것은 崇伯의 아들 禹가 부모의 봉양을 돌보는 것이

요, 英才를 기르는 것은 穎封人이 효자의 同類를 만드는 것이다.

勞苦를 게을리 하지 않고 마침내 부모를 기쁘게 한 것은 舜의 공이요, 도망하지 않고 죽이기를 기다린 것은 申生의 공손함이다. 그 받은 본성을 실천하여 온전한 데로 돌아가는 것은 曾參이요, 따르는 데 용감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伯奇이다.

부와 명예와 복과 은택이 있음은 나의 삶을 풍부하게 하지만, 가난과 무명과 근심과 재난은 나에게 시련을 줌으로써 나를 완전케 다듬기 위함이라. 살아 있는 동안 나는 하늘과 땅을 부모처럼 섬기고 죽을 때는 그 속에 편안히 안기리.

西銘 原文

乾稱父坤稱母 予茲貓焉 乃混然中處 故天地之塞
吾其體 天地之帥吾其性 民吾同胞物吾與也。
大君者吾父母宗子 其大臣宗子之家相也。尊高年
所以長其長 慈孤弱所以幼其幼 聖其合德 賢其秀
也。凡天下疲癯殘 惻獨鰥寡 皆吾兄弟之顛連而
無告者也。于時保之子之翼也 樂且不憂純乎孝者
也 違曰悖德 害仁曰賊 濟惡者不才 其踐刑惟肖
者也。知化則善述其事 窮神則善繼其志 不愧玉
漏爲無忝 存心養性爲匪懈 惡旨酒崇伯子之顧養
育英才穎封人之錫類 不弛勞而底豫舜其功也 無
所逃而待烹申生其恭也 體其受而歸全者參乎 勇
於從而順令者伯奇也 富貴福澤將享吾之生也 貧
賤憂戚庸玉女于成也 存吾順事 沒吾寧也。

人生을 50년씩 두 번 살자

최재천 교수(서울대)의 人生 이모작론

진화생물학자인 최 교수가 진단하는 고령화위기와 두 인생 체제의 근거는 이렇다. 현재 예측치들을 종합하면 2020년 한국 인구는 4900만명을 정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고, 65살 이상 노인 15살 미만 어린이들보다 많아지는 '노인국'이 된다. 또 2020년이 되면 노인 부양 부담률이 20%로, 젊은이 4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최 교수는 "평균수명이 100살에 가까운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는 '번식기'와 그 이후 삶인 '번식후기'로 나뉜 인생을 50년씩 두 번 살자"고 제안한다. "은퇴 뒤 살아야 할 기간은 이미 견디기 힘들 정도로 길어졌고, 노인도 의학발달과 건강 관리에 힘입어 젊은이 못지 않은 체력을 갖게 된 이상, 번식기와 번식후기를 철저하게 분리해 인생을 이모작하자"는 것이다.

최교수는 "두 인생 체제를 위해 적어도 40대 중반부터는 이모작 인생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뒷받침과 사회 분위기 형성이 필수. 그는 "정부가 직접 나서 보육환경을 혁명적으로 개선한 뒤 조기 결혼과 조기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며 "출산 파업을 막기 위한 대안이자, 번식기를 일찍 마치고 번식후기를 제대로 준비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기업은 양육 부담이 큰 번식기에 충분한 소득과 복지 혜택을 보장해줘야 하고, 번식후기를 코앞에 둔 사람들에게는 재교육을 위한 시간 및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河西先生の詩

비 개인 후

산성이라 오월에 꺾은비 장마 되어
한 달을 안 그치고 음운만 비끼었네
이제서야 갑자기 밝은 햇빛 보게 되니
차츰차츰 나무 끝에 매미 울음 들리누나
들 물은 아득아득 모래톱이 드러나고
언덕 사이 모포기에 더운 바람 일어나네
옷을 걷고 걸음걸음 누각에 올라가서
난간 기대 눈 돌려라 추녀 끝을 내리보니
마을 집은 새 보리를 말리느라 하 바쁘고
멀리 가는 길손은 시름을 다시 않네
얼음물에 채운 과일 첫더위를 물리치니
대자리 사각 침상 마음 다시 맑아져라
인생이란 저마다 근심 기쁨 있기 마련
조물은 무슨 심사 흐렸다 겹다 하지
저녁 해 비끼인 줄 모르고 서성대며
큰 소리로 길게 읊어 태평을 노래하네

晴

山城五月雨淋漓 一朔不止陰雲橫
今來忽見白日光 稍稍樹頭聞蟬鳴
野水蒼茫露少洲 隴間禾苗薰風生
褰衣步步上樓閣 憑軒縱目臨連薨
村家爭喜曝新麥 行旅不復愁遠征
凍飲水李却初署 竹簟方牀思更清
人生自爾有憂喜 造物何心陰且晴
逍遙不覺夕照斜 浩然長吟歌太平

우연히 읊다

때 못 만난 도연명이 어찌나 한스런지
경륜하던 큰 뜻이 동리에 묻히다니
술 속에 빠진 것은 단순한 일 아닐진대
요순의 기대를 마음에 품은 줄을 뉘 알리오

偶吟

常恨淵明不遇時 經綸大志沒東籬
沈冥翹冀非徒爾 誰識心懷堯舜期

소쇄정즉사

대숲 너머 부는 바람 귀를 맑히고
시냇가 밝은 달은 가슴 비추네
깊은 숲은 서늘 기운 보내 주는데
옹은 그늘 흘날려라 치솟은 남기
술이 익자 살포시 취기를 띠고
시 이루자 흥얼 노래 자주 나오네
한밤중 들려오는 소리는
피눈물 자아내는 두견 아닌가

瀟灑亭卽事

竹外風清耳 溪邊月照心
深林傳爽氣 喬木散輕陰
酒熟乘微醉 詩成費短吟
數聲聞半夜 啼血有山禽

泮宮留別

호남이라 천리 길 고향 가는 객이라서
바라보는 못 산이 눈부시게 밝군 그래
술 끝에 갈리자니 마음이야 섭섭치만
꿈 속에 만난다면 영이 서로 통하리다
봄 추위는 한결 더 옷소매를 꿰뚫는데
아침 해는 처음으로 뜨락을 쏘이누나
한 그루 새 매화를 부쳐주고 싶지마는
강물이 파릇파릇 시름 불러 어찌하리

湖南千里客回旋 望裏群山刮眼明
酒後臨分雖歎意 夢中相對亦通靈
春寒轉透征衫袖 朝日初暄陋巷庭
一樹新梅攀欲意 奈堪江草喚愁青

正祖大王御製賜祭文

正祖 十年三月 正祖大王이 孝陵(仁宗墓)에 展
拜하고 下敎하기를 故儒臣 金麟厚 契遇는 千古
에 曠絶하다. 本陵을 展謁한 뒤에 어찌 뜻을 보
이는 행사가 없어서 되겠느냐 該曹로 하여금 날
을 마련 치제케 하라 하고 아래와 같은 御製賜祭
文을 주어 四月 四日에 좌부승지 朴天行을 보내
어 筆巖書院에 致祭케 하다.

어제 사제문(御製賜祭文)

효릉(孝陵)에게 신하 있어 그는 바로 金學士라.
김 바탕에 옛 묵적(墨跡)은 盛代의 繪事로서
천년이 어제란 듯 대 푸르고 마음 붉어
해마다 칠월 되면 산에 들어 눈물 짓고

대숲 밖의 몇간 초당 제자 함께 離騷 읽네
碩人의 簫軸이요 군자의 명이(明夷)로세.
빛나고 빛난 검인(鈐印)은 朱子大全 한 질이라
이 책 안고 逍遙하니 光風 霽月 가이없소
끓인 학문 일으키니 大本이 中正하고
한 손으로 三綱 받쳐 듣는 자는 공경하네.
옥난간에 꽃을 구경 仙寢을 左右하며
애에 가득 붉은 충정 옷깃 여민 눈물 호소.
주구(珠丘)에 인제(禋祭)하니 聖祖의 誕辰이라
옛말을 추억하니 사모 더욱 새롭구려.
액을 겪은 장자(障子)는 물 구름과 함께 희어,
뒷사람들 구경할 적 擊節하며 탄식하네
有司에게 命을 내려 사당에 잔 드리노니
위로 오른 英靈이여 帝鄉이 아득하여라

孝陵有臣	曰金學士
宮綯古墨	盛際繪事
千載省識	筠碧心丹
年年七月	淚入喬山
竹外窮簷	楚騷蘭猗
碩人簫軸	君子明夷
惶惶鈐印	紫陽壹編
抱書徜徉	光霽無邊
遂倡絕學	大本中正
隻手三綱	聞者起敬
看花玉欄	左右仙寢
滿腔衷赤	泣訴敷枉
珠丘躬禋	聖祖誕辰
頻仰宿昔	懷慕彌新
閱劫障子	雲水同白
留後人觀	累 擊節
乃命有司	乃酌于廟
英靈上征	帝鄉杳杳

河西의 經濟思想 강연 요지

이 헌 창
고려대 경제학과

하서의 경제사상을 요약해 보자. 주자학자로서 修己를 중시한 河西는 功利와 私慾을 경계하는 글을 많이 남겼다. 이것이 治人=경제제민, 나아가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군자의 기본 요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물욕의 추구가 인성을 해치는 것으로 경계한 하서는 安貧樂道를 추구하면서도 士族으로서 독서할 여력을 갖추고 奉祭祀 接賓客에 소홀하지 않도록 가산의 관리에 무관심하지 않았다. 그는 육구의 中節 中和를 지향하여 飽食暖衣에 이르지 않는 기초적인 의식의 소비를 중시하였다. 그는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鄉約 시행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仁義의 王道를 이상으로 삼는 하서는 경제정책에서는 民生의 안정을 중시하였다. 그는 정치의 2대 과제를 교화와 민생의 안정으로 보면서, 후자를 선행조건으로 간주하였다. 민생안정의 대책으로서 그는 낮은 세율과 탐관오리의 방지, 절약, 굶주림의 구제, 산업 육성 등을 들었다. 그는 국가관리정책의 이념적 기반을 가정의 호혜 논리에 두었다. 그는 경륜을 펼칠 기회를 오래 가지지 못하여 국가경제의 관리에 관한 글을 많이 남기지 않았으나, 중요한 논점은 거의 지적하였던 것이다. 그가 경제제민의 포부를 가진 19세에 지은 〈鹽夫〉는 적극적인 경제관념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된다.

하서의 경제사상은 조선시대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 그는 주자학의 체계적 이해와 토착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16세기 이래 경제정책 이념의 기본 골격의 마련에도 기여하였다. 유학자로서 하서는 삼강오륜이 실현되는 조화롭고 안정된 농촌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그 경제적 기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그의 경제사상의 목표였다.

하서를 비롯한 주자학자들의 경제사상은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가. 첫째, 왕과 사대부관료라는 지배층을 전제하고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사상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시대적인 한계인 것이다. 다만 그런 한계 속에서 도덕성과 민생을 중시한 점은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적 이익의 추구를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리 추구를 통한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웠다. 주자학적 경제이념은 상업업의 발전, 나아가 경제의 효율화와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의 논리로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사상을 손쉽게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시장기능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호혜와 재분배라는 지배적인 배분기구의 안정적 기능을 위하여 사리의 추구에 대한 강한 윤리적 제약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서의 경제사상을 오늘날에도 계승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정치인이나 관리가 私利私慾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적 수양도 필요할 것인데, 오늘날 이런 점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는 감이 있다. 둘째, 유학의 가족적 공동체주의는 시장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시장경쟁에서 낙오되어 실업과 빈곤의 문제로 불행을 겪은 사람을 자선과 봉사를 통한 가족적 공동체주의로 감싸는 전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 나아가 국가를 한 가정으로 인식하는 의식, 그에 수반된 협력적 노사관계와 국민적 통합은 유교문화권의 경제발전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순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유교전통이 효율화=이재의 추구를 무시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워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親疎에 따라 情實을 두는 등의 폐단을 낳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 10일

惡法通過에 糾彈과 自省

朴來鎬

成均館典學 筆巖書院 執綱

嗚呼라 牝雞有晨의 逆理속에 우리 일천만 儒林은 분노와 치욕으로 가득 차 있다. 지난 1910년 庚戌國恥를 나라 잃은 부끄럼이라고 한다면 2005년 乙酉恥辱은 인류 紀綱이 무너지는 부끄러움이라고 할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을 받는 행위가 계속되는가 하면 부부의 이혼률이 날마다 높아만 가고 있는 현실에서 戶主制廢止法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報道를 들었다. 戶主制는 우리나라 美風良俗을 지켜온 法案으로 世界人이 仰視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은 三尺童子에 이르기까지 조선조 5백년 君王 가운데 폭군 하면 연산 광해로 알고 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에 惡法이 통과되었으니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뒷날 사가들은 노대통령을 기강을 무너트린 惡君으로 기록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惡法통과가 노대통령의 뜻이었다면 스스로 판 함정이기에 역사 속에 惡君으로 기록되어도 후회가 없지만 노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면 치마 바람에 휘말린 17대 열우당 의원들은 노대통령과 무슨 악연이 있어 惡法을 통과하는데 앞장서 노대통령을 악군으로 기록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시행령이 공포되기 이전

에 惡法의 통과를 철회하여 노대통령을 악군의 함정에서 구출한다면 역사는 노대통령을 聖君으로 기록할 것이며 議員들을 賢臣으로 기록할 것이다. 따라서 筆者를 비롯 우리 儒林 가운데 천성산을 지켜낸 지율스님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 惡法이 이렇게 통과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筆者는 지도자도 아니지만 侍下의 몸이기에 本鄉典校님과 함께 우리 고을 출신 金孝錫의원에게 戶主制廢止 반대에 署名을 받은 것에 멈추었다. 만일 各 鄉校가 署名을 받는데 우리 長城과 같이만 하였다면 악법통과라는 치욕은 없었을 것이다.

존경하는 유림지도자 여러분 一線陽脈이라는 희망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孔子의 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말씀처럼 成均館은 成均館이 할 일을 다하고 鄉校는 鄉校가 할 일을 다 한다면 애국자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나라를 되찾는 8·15光復이 오듯 戶主制하의 復活의 그날이 꼭 다가오도록 우리 모두 臥薪嘗膽의 정신을 다 집합시다.

乙酉2005년 3월 5일

▶ 제3기 山仰會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 2004년 12월 1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

지난 2004년 12월 1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제3기 山仰會 정기 총회 및 학술 강연회가 150여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공연웅 총무 사회로 시작된 총회에서 朴鍾達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제3기 사업보고, 회무 결산보고, 2005년 산양회 사업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 통과 되었다. 사업실적으로는 학술강연회를 하였으며, 학술자료 10호 12호를 발행했고, 임원 및 회장단 회의를 6회 가졌다. 현재 회원은 300명이고 자립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은 1300만원이다. 회원 협의에서는 장성 金炳孝회원이 '산양회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여러가지 건의하여 논의하였다.

2005년 사업계획안으로는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학술강연회를 계속하고 산양회보를 발행하며, 하서선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추록하고 삭망에 필암서원을 봉심하고 강회를 실시하며 신규회원 영입에 계속 노력하며 하서 선생의 유적을 발굴하고 답사하며 유관기관과 연락 및 홍보를 강화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총회 후 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창 교수의 '河西先生의 경제사상'이라는 강연이 있었다. 색다른 주제여서 회원들이 경청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다. 강연 후 공연웅 총무가 河西先生의 '示門人' 詩와 '次退溪詩'를 낭독하고 해설하였다.

▶ 山仰會 活動事項

1. 산양회 정기총회 및 강회

- 일시 : 2004년 12월 10일 10시30분
- 장소 : 광주시 남구 광주향교 유림회관
- 참석자 : 300명 참석
- 안건 : 1부. 정기총회 결산 및 사업 계획 승인
安錫품 전 회장 공로패 증정

2부. 강의

강사:이현창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河西(金麟厚)의 경제 사상

2. 임원단 회의

- 일시 : 2005. 3. 5. 11시
- 장소 : 필암서원 청절당
- 안건 : 1)임원 및 서원 책임자 상견례
2)산양회 회보 발간 위원 구성 협의
3)춘향제 준비 (3월 28일)
4)기타 사항 협의

3. 임원 회의

- 일시 : 2005. 5. 20. 오후 4시
- 장소 : 광주시 남구 예원회관
- 참석자 : 회장 박종달 외 12명
- 안건 : 1)회보 발간 위원 구성
2)하계학술발표회 및 장소 협의
연세대 교수 송준호, 일시 6월30일
(음 5월 24일) 10시

▶ 공연웅 총무 건강 때문에 사임

· 2005년 5월 20일 임원회의에서 박종달 산양회장은 건강 때문에 사의를 표명해 온 공연웅 총무의 뜻을 받아들였다.

· 文正公 首席 副都有司 金相杓

山仰會 임원에 선임됨.

장성군 진원면 학전리 평촌

061-392-5115 / 011-9625-9666

▶ 山仰會 고문 金老洙 회장 고향·국가에 산림 46만평 양여

모암 金老洙(91세) 세창철강 명예회장이 고향인 장성과 국가에 산림 46만평을 기증하였다.

고향과 국가를 위해 거액의 산림을 기증함으로써 노년에 고향을 위해 헌신하는 장성의 아름다운 어른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金 회장은 장성군 황룡면에서 태어났다. 30세에 광산구 삼도면으로 이주하여 정미업에 뛰어들었다. 정직과 성실, 근면과 신의를 신조로 운영하여 번성하였다. 58년에 정미소를 정리하고 세창철강을 차려 200여명의 사원을 거느린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사업에 성공한 金 회장은 이 모든 것이 조상과 고향의 은덕이라고 여기며 봉사의 길로 들어섰다.

72년에 영등포 로타리클럽에 가입하여 3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국제 로타리클럽에 25만달러를 출연하였다. 82년 10억원으로 모암장

학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장성로타리클럽에도 5천만원을 지원했다.

광산구 삼도면의 임야 6만평을 기부한 바 있는 金 회장은 편백·삼나무로 휴양림이 조성된 장성군 서삼면 문수산 산림 46만평을 고향과 국가·후손들을 위해 국가에 양여했다. 이 산림은 조림왕으로 유명한 임종국씨가 조성한 것을 金 회장이 그 절반을 매입했다가 모두 고향을 위해 되돌려 준 것이다.

河西先生의 후손인 金 회장은 선생을 선양하는 사업에도 남다른 열의를 보여 74년에 북이면 명정리에 흥려군의 신도비를 건립했으며, 河西集의 영인과 국역본 발간에도 참여하였고, 선대 맥춘공 유집 국역본도 발간하였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고향 사랑에 앞장서 온 金 회장은 국제로타리 초아봉사상, 2000년에 국제로타리 특별공로상을 받았으며, 99년에는 자랑스런 전남인 상, 2000년에는 장성 군민의 상을 받았다.

“나는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고향과 선영의 은덕,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과 사회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봉사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해하는 金 회장은 자신을 위해서는 버스비도 아낄만큼 검소한 생활을 해온 분으로 알려져 있다.

▶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松坡 慎日範

湖堂 鄭安鎭

筆巖書院 山仰會

▶ 2005년 필암서원 春享 거행
초헌관에 高大 전 총장 洪一植

2005년은 河西先生이 서거한 지 496년이 되는 해이다. 선생을 추모하는 본원의 춘향제일인 2월 15일(中丁)은 영조왕비 貞聖王后的忌日이어서 3월 28일(음 2월 19일) 11시에 거행되었다. 전북 유림 安在淳氏의 執禮로 거행된 춘제에서 초헌관은 고려대학교 전 총장 洪一植박사가 맡았으며, 아헌관에는 경남 부산 유림의 元老宋台復氏가 종헌관에는 광주 교육계 원로 任琮模 선생이 수고하였다. 祝官은 경기도 유림으로 한국 한시협회 총무인 鄭亮元씨가 맡았다.

본 고을 김홍식 군수를 비롯 각급 기관장과 전국 유림 및 본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으며, 이어서 초헌관을 맡았던 洪一植박사가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洪박사는 오늘날 한국 유림이 직면해 있는 현실을 냉철히 지적하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효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역사적으로 망하지 않은 왕조가 없는데 조선 왕조가 망한 것은 유교의 잘못으로 보는 요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왕조가 500년을 지탱한 것은 위대한 유학의 근간인 忠孝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향사에 앞서 전야제 행사로 柳漢相원임 대표를 비롯하여 여러 선비들의 강회와 글짓기 행사가 있었다.

▶ 백일장 소식

제 3회 전국 漢詩 白日場이 2005년 6월 3일에 필암서원 淸節堂에서 개최되었다. 300여 명이 참여한 백일장의 詩題는 淸節雅會였으며 押韻은 〈明, 名, 聲, 程, 盟〉이었다. 壯元에는 郭慶淳(경북 대구), 次上에는 辛萬承(청주시), 安在大(대구시) 氏에게 돌아갔다.

壯元詩

郭慶淳

湛老生平懿蹟明 千秋竹帛闢高名
長城永照奎星瑞 淸節重鳴木鐸聲
振作文風希孔孟 磋磨理學慕朱程
宗師道德誰無仰 百世推尊豈豆盟

선생께서 평생토록 아름다운 행적을 남겼으니
천추의 역사 속에 높은 이름이 빛났도다
장성 고을에는 길이 문천성이 비취 있고
청절당에는 거둬 목탁소리가 들리도다
文風을 일으켜 孔孟을 희망하고
학문을 연마하여 朱子와 程子를 사모하도다
높은 스승의 도덕을 누가 추앙하지 않으리오
세상이 다하도록 推尊하여 香火를 올릴 것
을 맹세하도다



次上詩

辛萬承 作

河翁理學日同明 東國宗師振大名
節義如山爵祿 文章若海得稱聲
慕朱祖孔陳綱目 繼往開來設課程
痛哭卵峯流血淚 巍巍遺?不忘盟

又

安在大 作

湛老貞忠日月明 儒生追慕記芳名
筆巖更照奎星耀 清節重鳴木鐸聲
能守綱常遵孔孟 深窮性理效朱程
卵山痛哭思仁廟 一片丹心向主盟

▶ 선비학당 소식

서원은 글 읽는 소리가 나아한다는 김홍식 군수의 교육 행정의 하나로 설립된 필암서원 선비학당은 지난 2004년 12월 15일 林基玉 朴春英 이재수 고재근 등 31명이 수료패를 받았으며 지금도 공부는 계속되고 있다.

본 선비학당은 전라남도가 금년 4대 사업 중 하나로 지정하여 文房四友와 祭服을 특별히 비치하고 방문객 누구나 글씨 써보기, 탁본해보기, 제복 입어보기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행·복·해·진·다·는·것

헤르만 헤세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 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그런데도
그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갖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는
까닭 인간은 선을 행하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르지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 속에 조화를 찾는 한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한
사랑은 유일한 가르침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단 하나의 교훈이지.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그렇게 가르쳤다네.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영혼
그의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보리죽을 떠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누더기를 걸치든 보석을 휘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 있는 한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화음을 올렸고
언제나 좋은 세상

신입회원 주소록

〈姓名, 本貫, 雅號, 住所, 電話番號〉

- 金永達, 淸州, 翠松
광주시 남구 봉선동 502 라인아파트 101동
1007호
T. 011-626-5818
- 曹相鎬, 昌寧, 心松
전남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315-1
T. 016-778-0534, 061-383-0534
- 朴文洙, 密陽, 月潭
전남 담양군 주산리 주평
T. 011-609-3228, 061-382-3227
- 金炳郁, 蔚山
광주시 남구 방임동 삼일아파트 11동 103호
T. 062-651-3233
- 李載承, 咸平, 松山
전남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867하산
T. 011-602-6789, 061-322-8100
- 이동명
광주시 광산구 / 호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고영진
광주시 남구 진월동 / 광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金煥根, 義城, 一剛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29-385
T. 017-571-1960, 051-971-3309
- 鄭亮元, 草溪, 至愚堂
경기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현대성우아파
트 813-1004
T. 016-594-3103, 031-261-3193
- 宋賢復, 淸州, 湖亭
경남 김해시 어방동 동원 아파트 502동 903호
T. 017-575-4457, 055-328-9315
- 姜麟鉉, 晉州, 于堂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902
T. 055-82-5259
- 宋台復, 淸州, 晚悟
경남 김해시 삼방동 690-1 동원아파트 105
동 406호
T. 011-9720-0378, 055-334-0045
- 張玄武, 仁同, 春坡
경남 하동군 악량면 축지리 319
T. 011-9522-3673, 055-883-3673
- 金秉學, 商山, 蓮谷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1동 중흥파크 아파트
1-108호
T. 016-686-2199, 062-365-2199
- 金採林, 金海, 청련당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235
T. 016-255-6978, 061-392-6365
- 朴炯梓, 珍原, 旻山
전남 순천시 長泉洞 22-42 10통 3반
T. 011-9614-8633, 061-744-8630

주식회사 대일상사

쌍용양회 광주·전남 특약점

代表 金 文 珍

광주시 북구 중흥동 805-19(광주역 뒷편)
Tel. 528-7001~3 Fax. 528-3001

入會를 환영합니다

<姓名, 本貫, 雅號>

金永達, 淸州, 翠松
曹相鎬, 昌寧, 心松
朴文洙, 密陽, 月潭
金炳郁, 蔚山
李載承, 咸平, 松山
이동명
고영진
金煥根, 義城, 一剛
鄭亮元, 草溪, 至愚堂

宋賢復, 淸州, 湖亭
姜麟鉉, 晉州, 于堂
宋台復, 淸州, 晚悟
張玄武, 仁同, 春坡
金秉學, 商山, 蓮谷
金採林, 金海, 청련당
朴炯梓, 珍原, 炅山

이상 2005. 6. 25까지

特別會費 誠金內譯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삼양사	壹百萬원
광주	남구	金梓洙	壹拾萬원
광주	북구	金東河	壹拾萬원
전남	구례군	高在萬	壹拾萬원

알림

1. 본회 제15차 학술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05년 6월 30일(목요일) 11 : 00
- 장 소 : 광주향교 유림회관(광주시 남구 구동)
- 주 제 : 河西詩의 몇가지 局面
- 발 표 자 : 송준호(연세대 국어국문과 교수)

2. 원고 모집안내

- ① 하서선생과 교유한 인물. ② 하서선생에 관한 새 자료. ③ 산양회가 할 일.
- 보내실곳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필암서원 산양회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 회원 여러분의 애경사, 선행, 미담 등 특별한 동정을 실어 '산양회 사랑방'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추천을 바랍니다.
- 주소·전화번호 변경 사항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장성축산농협 175809-52-099266 (예금주: 필암서원 산양회 김용숙)

5. 입회 절차 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축협 175809-52-099266)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 하시고 전화(019-618-2084 김상원)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姓名:	本貫:	雅號:	生年月日:
住所: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現職:	學歷 및 經歷: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필암서원 산양회 회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근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발전시켜 선양하여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여 산양계 재발기 준비위원회(위원장 安晉靑)를 구성하여 高亨坤 필암서원원장을 비롯한 서원집강, 崔昌圭 당시 성균관장을 비롯한 전국의 유림 230여명이 2001. 8. 22일 필암서원에서 모임을 갖고 山仰會로 개칭하여 재발기 하였던 바 그후 활동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2001. 8.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 주제아래 安晉靑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0.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선생이 본 하서선생” 주제 아래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2.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 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 3.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인종승하와 하서의 절의” 주제 아래 金鎭雄씨(서울대 공대졸, 부산거주, 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 8.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강)가 번역 봉독.
- 2002. 9.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천명사상”의 주제 아래 尹絳淳 고려대명예교수의 강회.
- 2002. 12. 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1호)1000부를 발행 配布.
- 2002. 12.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 주제아래 전주대 吳鍾逸교수의 강회.
- 2003. 3.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煥圭 전남대 명예교수(담양 가사문학관장)의 강회.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晉靑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을 하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데 기여하였음.
- 2003. 6. 2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2호)1,500부를 발행 配布.
- 2003. 7. 1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의 강회를 여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데 기여하였음.
- 2003. 9.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무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하였음.
- 2003. 12. 10일 山仰會報 제3호 1500부를 발행 배포.
- 2003. 12. 17일 산양회 정기 총회. 安晉靑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새회장에 朴鍾奎, 새총무에 孔鉉雄 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악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 3.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 河西 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 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하였음.
- 2004. 9.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 12. 10일 산양회 정가총회 및 학술 강연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를 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 4호 1500부 발행.
- 2005. 3.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박사가 강연함.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